

- 본문 말씀 | 창세기 2장 8-17절
- 결단 찬양 | “주님 말씀하시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나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개의 단어를 불러줄 텐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4대 발명품이에요. 이 네 가지 발명품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발명한 것이지만 무역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거든요. 나침반으로 인해 해상 무역과 탐험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화약이 무기화되면서 국가 간, 민족 간 큰 전쟁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종기와 인쇄술의 발달로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던 지식이 보편화되어 계몽주의가 발현하기도 했어요. 이를 종교 개혁의 불씨로 여기기도 해요. 나아가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기술은 날로 높은 성장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

절 취 선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 터지게 돼요.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914년과 1945년 사이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그동안 쌓아 올린 문명의 화려함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문명의 이익이 오히려 독이 되어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이 시대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이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상대주의’라고 해요. 상대주의는 ‘너도 맞아 그리고 ‘나도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기준이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 재미와 쾌락이 ‘선’이 되어버린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라는 거예요.

2

문제는 재미와 쾌락이라는 것이 저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좋은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도 불법과 편법이 꾸준히 자행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기준'인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자유가 그 어떠한 기준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준이 없는 자유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길을 가다 보면 중앙비들이 늘어선 공사 현장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통제구역표시를 해놓고 바리케이트를 쳐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주장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까요? 자신이 다치게 되거나 혹은 공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지요? 기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또 운동장에 모여서 줄을 맞춰 설 때 맨 앞이나 끝에서 기준을 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 도열이 잘 갖춰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은 없어! 내 마음이 기준이야!”라고 외치는 세상을 향해 “기준이 있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오직 한 분만이 가능하세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는 분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8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창 2:8).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더불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즉, 하나님이 인간을 동산에 두셨어요.

이어서 9절도 읽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 2:9).

하나님이 그 땅에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저절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방금 읽은 9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 두지 않으셨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한 답을 말해 줄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준’을 세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네 집에서 얼마간 지내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집주인 친구가 한동안 해외로 떠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집을 맡기고 가게 된 거예요. 여행을 떠나면서 친구가 이렇게 당부해요. “내가 다녀올 동안 다른 친구들도 초대해서 마음껏 지내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 거실에 있는 도자기는 정말 내가 아끼는 거니까 누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줘.”

이 말을 하고 친구가 여행을 떠난 뒤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게 되었어요. 마치 내 집인 양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중, 다른 한 친구가 도자기 가까이 가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문득 집주인 친구의 당부가 떠오를 거예요. ‘맞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내 친구가 잠시 맡기고 간 집이지!’ 이때 도자기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인 물건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기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겠지요?
2장 16절 말씀 읽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 2:16).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 무수히 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은 임의로 즉,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기준 안에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어서 17절 말씀 읽어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17).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 주는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알려 줘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경험, 의견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타인의 마음과 삶에 상처를 주고,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여기, 매우 간단한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워 주신 기준 앞에서 ‘이것이 맞나?’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알고, 믿고, 지키는 태도가 피조물이자 청지기인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주신 가장 좋은, 안전한, 행복한 길임을 기억하세요. 앞으로의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고 응원할게요.